

“Internet Librarian '97”을 다녀와서

이 효 경

(美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사서)

1. 글을 시작하며

Internet Librarian들을 위한 세계적 규모의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반가움과 기쁨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 더욱 확고해져 가는 듯하다.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의 일을 시작한지 겨우 6개월이 조금 넘었을까 아직도 서툴고 익숙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때였다. 내가 근무하는 동양도서관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도서관장님은 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또 인터넷 쪽으로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도서관 홈페이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를 밀어주시고 걱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마침 콜롬비아대학내에 Junior Librarian을 위한 Professional Travel Award라는 제도가 있어 나는 서슴지 않고 원서를 넣기로 마음 먹었다. 회의에서 직접적인 발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의 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로부터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까지의 먼 여행길의 자비를 줄이기 위해선 학교

의 Award가 필수적이었다. 우리 도서관장님의 강력한 추천서 덕분에 나는 \$1,000의 Award를 받게 되어 재정적인 걱정 없이 Monterey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2. “Internet Librarian '97”이란

Internet Librarian '97은 미국의 「Information Today」와 같은 유명한 정보지 및 정보 관련 상품을 만들고 제작하는 Information Today社에서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계된 도서관인들을 위해 마련한 세계적 규모의 공식회의였다. 학교, 회사,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은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으며 등록된 인원은 모두 2천명이 넘는 수에 달했다고 하니 과히 그 관심과 규모를 짐작할 만 하겠다. 100명 이상의 능력 있는 실무실력자들로 엄선된 회의 발표자들이 더욱 첫 모임의 의미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

3. 참가내용

회의 일정은 모두 5일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공식회의는 1997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서 있게 되지만 회의 전과 후에 각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하루에도 3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그 내용은 5일 이상 량의 다양하고 풍성한 스케줄이었다. 그러나 나는 17일부터 19일 3일간의 공식회의만 참가했으며 3일 내내 Track A의 주제에 집중해서 들었다. <상세일정은 53쪽 참조>

■ 11월 17일

전날 Monterey의 숙소에서 편히 쉬 덕분에 이른 아침 시내 중심가에 있는 Double Tree Hotel에 있는 회의장으로 발길을 재촉할 수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많은 인파의 물결이 금새 회의장의 분위기로 빠져들게 하였다. 먼저 등록을 하고 멋진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첫날 첫 포럼이 있는 장소를 찾아 향했다. 극장식 대형강의실을 연상하는 장소에 모여든 인원이 대략 눈짐작 만으로도 수백 명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선택한 Track A의 공통된 주제는 “Digitizing Resources.” 한마디로 정보의 디지털화라고 할까 제목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첫 강사는 IBM의 Digital Library Consultant로 있는 Richard P. Husler였는데 그가 소개한 IBM Digital Library System은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과 같이 멀티미디어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검색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 한 예로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의 음악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음악 카세트 테이프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 안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text뿐만이 아니라 image/scene을 검색해 내는 시스템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 강연은 자료의 디지털화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로 저작권을 다루었는데 실질적인 지식과 함께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법률전문 사서로 일하는 Laura N. Gasaway의 요지는 어떤 자료이든지 디지털화할 때 주의할 것은 그것을 인쇄본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취급하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용 전에 문의해서 나중에 법적 시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다. 하물며 인터넷에 있는 작은 아이콘이라도 사용 시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세 번째 강사는 Kirk V. Hastings로 UC, Berkeley의 Digital Collection Case Study를 가지고 나왔다. Sun SITE으로 알려진 Berkeley의 Digital Library는 간결함과 효율성을 높이 살려서 만든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도왔다. Kirk의 요지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독특한 자료만을 디지털화 하라, Metadata를 반드시 만들 것, 이용자 층의 다양성을 참고로 자료 검색 방법을 다양화할 것, 데이터를 변환시킬

때는 이미 시험 검토된 믿을만한 것만을 이용할 것 등이 있었다.

네 번째 소주제는 디지털 자료의 보관과 검색에 관한 스웨덴 국립도서관의 경험을 Fran Lettenstrom으로부터 들었다. 스웨덴은 법에 의해 국립도서관에서 모든 스웨덴 간행물을 수집하기로 되어 있으나 디지털 자료에 관해서는 아직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1996년부터 실시된 "Kulturarw3"는 현재까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모든 Web Page(HTML, images, video clips, etc), usenet discussions 그리고 listserv를 디지털화해서 저장보관하고 있다. 아마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의 보관작업은 전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에 이어 다섯 번째 강연은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주제로 살펴보았는데 Darlene Fichter, University of Saskatchewan Libraries는 새로운 미디어의 복잡성과 변동성 그리고 기술적 부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먼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변화기이며 고정된 표준 틀이 없이 계속해서 보다 좋은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현재는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기임을 기억하여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자료보관의 디지털화는 물리적인 정보보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버릴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첫날 마지막 강의는 비용에 따른 디지털화의

장점을 살릴 Penn State Harrisburg의 실험연구로 Gregory A. Crawford와 Gary W. White가 학교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 예로, Business Periodicals OnDisc의 비용연구를 해본 결과가 디지털화의 계획과 결정에 이끄는 도움을 준 사례를 설명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실질적인 비용의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디지털화에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11월 18일

둘째날 포럼의 주제는 "Virtualizing Services". 그야말로 Internet Librarian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돕고 있는 사서들의 활약상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되었다. 가상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가상의 서비스는 생각만큼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 영향 또한 도서관 전체에 파급되어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용자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문제, 정책 개선 문제 등 실제로 사서들이 경험해서 배운 현장 수업을 듣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Havard Business School의 Internet Services 사서로 있는 Kenneth Liss가 먼저 둘째날의 문을 활짝 열었다. MBA 학과의 학생과 교수들, Internet Librarian의 편리를 돕고자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고안된 하나의 정보 패키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상도서관을 만듬으로써 전자정보의 구축에서부터 조직화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Baker 도서관(하버드의 비즈니스 도서관)의 시

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수들이 그들의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어 가상도서관의 실현을 바로 그들의 데스크탑으로 끌어들이는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또다른 시범 케이스로 가상도서관에서의 정보 전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연사는 Adele F. Bane. 그녀는 SmithKline Beecham 제약회사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Document Delivery Service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연구한 결과, 가상도서관의 높은 효율성을 지적했다. 한해에 100,000건 이상의 문서를 회사내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SmithKline Beecham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R & D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세계화를 구축했다. OCLC, LC, British Library 그리고 세계의 인터넷 정보를 위해 도서관장서의 목록을 인터넷에서 검색가능케 하고 문서신청서를 자동화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상도서관의 성공을 이루었다.

두 번째 시범 케이스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의 경우로 인터넷 상에서 정기간행물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가상도서관의 설치 이후 사서들이 실제로 이용자와 함께 일하는 건수가 줄어들게 되자 남은 시간을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동안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인터넷에서 맘껏 발휘하여 시도해본 Internet Public Library(IPL)는 Havard의 Nettie Lagace와 IPL

의 시스템을 맡고있는 Michael McClenmen,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의 Internet Librarian들의 실험적인 정신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대상으로 참고봉사를 하면서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 다양하고 어려운 질문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IPL의 기본원리는 인터넷에서의 참고봉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도서관 사서들간에 함께 공유하자는 데 있으며 앞으로 여러 다른 환경에 있는 도서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둘째날의 마지막 강사는 Wayne Daniels, Metro Toronto Reference Library로 거의 2000개 이상의 우주에 관련된 Internet Links를 자신이 직접 모아 만든 "Expanding Universe"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특이할만한 것으로는 듀이 십진분류법을 이용하여 분류 목록했다는 점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칫 읽기 쉬운 조직적인 주제별 분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야후(Yahoo)와 비교했을 때 더욱 주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한다. 하지만 우주분야에 국한된 시도이다.

■ 11월 19일

마지막 날은 앞으로 사서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업무의 방향을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주제는 "New Technologies, New Roles."

첫날 첫 강연을 맡았던 IBM의 Richard P.

Husler가 다시 등장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강연 내용은 “우리 도서관 사서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에 나오는 초우주적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그의 미래지향적 의상이 말해주듯이 앞으로 우리 도서관인들의 미래는 과거나 현재와는 현저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사서(Librarian)의 미래형 용어들을 살펴보면, Cybrarian, Digital Library Manager, Data Model Designer, Information Literacy Coach, Information Utility Director, Avatar Knowledge Executive, Knowledge Ecologist 등이 있다. 이에 맞춰 바람직한 도서관인의 갖추어야 할 미래상으로는 팀워크, 전략적 계획, 다양한 기술의 입수, 융통성과 적응성, 마케팅 등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다음은 Donald T. Hawkins, InfoResources社 사장의 미래예측으로 그는 현재 사서들이 탈바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직업으로 Webmaster, Internet Cataloger, Trainer/Course Developer, Web Site Designer, Internet Village Librarian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우리들의 전문직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으며 지식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들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서, 그러면 현재 사서들의 어떠한 장점이 강점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NASA의 Robin Dixon

과 Owens Corning Science & Technology Center의 William J. Robinson은 모두 인터넷상에서의 Competitive Inteligence(CI)를 모아서 이것을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사서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동의했다.

다음 세명의 연사는 각각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기업도서관에 맞춰 Internet Librarian의 변화 발전해 나가야할 부분들을 정리 요약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서의 모습을 단순한 정보 소유자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그 길을 열어 가는 PathFinder로 지칭하며 전자도서관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이용자를 인도해 나가는 개척자의 위치로 부상시켰다. 기업도서관을 설명한 두 번째 연사 또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내의 인터넷을 조직해 나가는 주요 멤버로서 도서관인을 재정의했으며 앞으로는 정보의 내용을 제공해주는 Content Provider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용자 교육과 훈련을 사서의 중요업무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사서의 새로운 이미지는 IPL(Internet Public Library)를 개발 성공시킨 Nettie Lagace가 맡았는데 가상의 서비스가 요구하는 기술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그래픽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의 지식과 습득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마지막날 포럼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앞으로의 직업관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모여든 젊은 사서들의 관심과 배우

고자하는 의욕은 한층 더해지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San Jose State University의 School of Libray and Information Science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Linda Main은 도서관/정보학을 가르치는 교단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교과과정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게 된 인터넷의 등장은 교수들의 교습방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도서관학에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인터넷을 다루는 기술은 당연히 습득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으며 학교 수업도 인터넷 상으로 강의하는 일이 현실화되었으며 학생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과제를 제출 검토받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전통적인 도서관인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때이며 앞으로 가상학교의 현실화가 곧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pple Computer 社에서 일하는 Bonnie A. Nardi의 참신한 연구가 돋보이는 시간이

었다. 그녀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내의 참고봉사사서들로 그들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머리 속에서 처리되는 수많은 활동들을 모델로 삼아 21세기 도서관인의 모습은 바로 정보가 진화한다는 이론에 입각해 서비스도 함께 진화해 가야 한다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다.

4. 글을 마치며

이것을 끝으로 모두 3일에 걸친 대단원의 Internet Librarian의 포럼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비록 참가한 포럼은 전체 포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실로 보고 배운 것은 기대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공적인 제1회 Internet Librarian Conference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있는 분야의 많은 도서관인들이 인터넷과 함께 생활하며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지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부록〉 “Internet Librarian '97 프로그램”

Preconference :

- Sunday, Nov. 16, 1997
 - Advanced Internet Searching with Major Net Finding Aids
 - Re-Creating Info Services with New Technologies
 - Web Graphic Design for Librarians
 - Internet Success Strategies
 - Teaching the Internet in 50 minutes
 - Internet and Upper Management
 - Writing a Library Technology Plan
 - Internet Tips & Tricks
 - Freedom and Responsibility on the Internet

Microsoft : A Case Study in Organizational Focus

Information Industry Executive Briefing

General Conference :

- Monday, Nov. 17, 1997
 - Track A : Digitizing Resources
 - Digitizing Resources
 - Copyright Issues Impacting Digitizing
 - Creating Digital Collections : Berkeley's Case
 - Archiving & Accessing Digital Resources

Archiving Digital Resources : Illusions & Issues

Digging for Cost-benefits

Track B : Tools & Techniques

Librarians Talk to Search Engines : Part I , II

Evaluating the Quality of Info on the Net

Filtering Tools : Limiting Access

Filtering Tools : From Pull to Push

New Applications & Views : Webcasting and Navigation

Track C : Managing Organizational Knowledge

Organizing Knowledge Assets : Part I , II

Knowledge Resources Mapping

A Tale of Two Sites

Intranet Case Studies : Part I , II

■ Tuesday, Nov. 18, 1997

Track A : Virtualizing Services

Online, On Time and On Target

Virtual Library Case Studies : Information Delivery

Virtual Library Case Studies : Operations Issues

Digital Service Strategies for Statewide Access

Questions and Quirks

Virtual Processes for Virtual Services

Track B : Net & Web Management

Protecting Y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cy I , II

Running an Email Discussion List

Putting Databases on the Web

Making Your Web Site Accessible

Lessons Learned by Library Web Developers

Track C : Searching & The Web

Secrets of Super Net Searchers

Web Based Search Systems : Client & Supplier Panel

Navigating the Web for Fun & Profit

The Internet Challenge : Tradition-

al Online Challenges the Net Excite & the WWW

■ Wednesday, Nov. 19, 1997

Track A : New Technologies, New Roles

Where Are We Going? : A Look at Where Our Profession is Headed Our Competencies

Transformations In Action

Preparing the Profession : New Education for New Role

What's our Edge? Info Professionals vs. Technology

Can I still Be Useful If I Don't Know My Applet from My Router : Case Studies Say Yes!

Track B : Captured By The Web : Library Systems

Integrated Library Systems Architecture : Z39.50, HTTP

Expanding Access to Materials & Services Using Web Technology

The Web & Library Systems

Track C : Training & The Net

Learning Environment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via the Net

Distance Education & the Net

Track D : Net Strategies & Trends

Wired to the Future

Future Strategies for Libraries

Hot, New & On the Net

Cyber Bucks & Libraries : Part I , II

Strategies for Knowledge Ecology

Postconference :

■ Thursday, Nov. 20, 1997

Building the Corporate Intranet Knowledge Center

Java : An Under the Hood View

Choosing Appropriate Internet Technologies Multimedia, VRML, and Information Management

Creating Secure Library Networks : Issues and Technologies